

정례브리핑

2020.11.13(금) 10:30, 조혜실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춘천-원산 포럼에 참석하여 기조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통일로가요' 결선공연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오전 8시 차관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평화경제 실현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합니다.

작은 교역 확대를 위한 창의적 접근방법, 보건, 자연재해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미국 대선 이후에 북한이 관련 보도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평가·분석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북한 개인명의의 SNS 계정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북한 계정으로 보시는지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미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과거 미 대선 이후 낙선자의 승복으로 승패가 확정된 이후 최근 10년간에는 그때 보도가 됐던 사례도 있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주변국들의 동향 이런 것도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정부로서는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세의 유동성이 높은 시기에 남북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신뢰를 만들어 남북의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이러한 견지에서 북측이 신중하고 현명하게 또 유연하게 전환의 시기에 대처해 오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서 북한 개인명의 계정, 트위터 계정이 나왔다는 보도를 봤는데 북한 체제 선전 관련 SNS는 '조선의 오늘', '우리 민족끼리' 같은 북한 대외선전 매체가 운영하거나 친북단체가 운영하거나 북한 관련 아이디 이런 다양한 방식의 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보도된 해당 트위터 계정이 북한이 운영하는 계정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바이든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변화 이런 전망들,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북한이 도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군이 적극적으로 파악하겠지만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의 특이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군에서 특별한 동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